

# 古逸叢書本《論語集解》 訓詁 中の 聯合式複合語

李宰碩\*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同類相關型 |
| II. 《論語集解》 속의 聯合式 複合語 分析 | 3. 同類反義型 |
| 1. 同義互訓型                 | III. 결론  |

## I. 서론

모든 언어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다. 저작 당시에는 비교적 淺近한 언어로 쓰여진 儒家의 經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헌으로 변해갔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經典의 原意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經을 풀이한 傳을 쓰고, 다시 세월이 흐른 뒤에 이것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注·疏를 지었다. 《論語》도 예외는 아니다.

《論語》의 완성 연대는 章炳麟이 孟敬子가 죽은 뒤일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로, 학계에서는 대체로 戰國時代 초기인 기원전 400년 전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sup>

何晏(190-249)의 《論語集解》는 실제로 孫邕, 鄭衝, 曹羲, 荀爽, 何晏 등 5인이 공동으로 완성한 것이다. 이 책은 孔安國, 包咸, 周氏, 馬融, 鄭玄, 陳羣, 王肅, 周生烈 등 兩漢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학자들의 학설을 모은 것으로서 몇 가지 《論語》古本의 원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최초의 《論語》集注本이다.

\*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1) 章炳麟(1986), 《春秋左氏疑義答問》(《章太炎全集》第6冊,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참조. 그 이유는 《論語·泰伯》편에 曾參과 魯나라 孟敬子의 대화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曾參은 孔子가 말년에 얻은 가장 나이 어린 학생이고, 또 '敬'은 諱號이며, 孟敬子는 魯나라 悼公(기원전 429년에 죽음) 뒤에 죽은 사람이므로, 이 책의 완성 연대는 당연히 그 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楊伯峻(1984)의 《經書淺談》(北京, 中華書局), 屈守元(1992)의 《經學常談》(成都, 巴蜀書社), 楊成孚(1994)의 《經學備論》(天津, 南開大學出版社)에서 모두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論語集解》는 정확한 완성 연대는 알 수 없으나 何晏의 생졸년으로 볼 때 서기 200년 이후의 저작이다. 그렇다면 《論語》와 《論語集解》 사이에는 6백년 이상의 시간적인 거리가 생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論語集解》는 주석서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상용하는 언어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중국어의 어휘가 單音節語에서 複音節語로 변화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므로, 《論語集解》의 複合語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어 어휘의 발전 변화 과정을 증명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준다.

《論語集解》 訓詁 중의 複合語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論語》 經文 중의 單音節語가 語根으로 되어 합성된 것. 둘째, 《論語》 經文 중의 同義·近義 또는 反義의 두 單音節語가 語根으로 되어 합성된 것. 셋째, 《論語》 經文 중의 單音節語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論語集解》에서 새로 출현한 것.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經文의 單音節語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첫째와 둘째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聯合式 複合語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판본은 清末 黎庶昌이 校刊한 《古逸叢書》(1990, 江蘇廣陵古籍刻印社)에 수록된 《覆正平本論語集解》이며, 아울러 清代 劉寶楠의 《論語正義》(1992, 中華書局 刊, 十三經清人注疏本)를 참고하였다.<sup>2)</sup>

## II. 《論語集解》 속의 聯合式 複合語 分析

聯合式은 중국어 중에서 가장 발달한 조어 방식으로서, 고대에서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조어 방식이다. 聯合式은 論者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두 語根의 의미에 따라 同義互訓型·同類相關型·同類反義型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 유형별로 품사에 따라 분류하기로 한다.<sup>3)</sup>

2) 清代 劉寶楠(1791-1855)의 《論語正義》는 고대 《論語》 注釋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저작이며, 아울러 何晏 등의 《論語集解》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권위있는 注釋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劉寶楠의 아들 劉恭冕(약1826-1885)이 凡例에서 밝힌 바와 같이, 北宋 때 邢昺(932-1010)의 《論語疏》를 따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속에 수록된 것이 《論語集解》의 定本으로 알고 있으나, 필자의 조사 결과 《古逸叢書》본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그래서 《古逸叢書》본을 위주로 하고 《論語正義》본을 참고로 삼은 것이다. 인용문 속의 [ ]은 해당 글자의 《論語正義》본의 표기이고, ( )는 《論語正義》본에는 없고 《古逸叢書》본에만 있는 글자이며, 반대로 < >는 《古逸叢書》본에는 없고 《論語正義》본에만 있는 글자이다. 장절의 구분은 《論語正義》본을 따랐다.

3) 고대 중국어 聯合式 複合語의 의미에 따른 분류 방식은 黃志強(1985)이 《關於〈左傳〉複合詞

## 1. 同義互訓型

‘同義互訓型’은 연합 구조의 複合語 중에서 두 語根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구성된 결합 형태를 말한다. 품사와 구성 방식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 동사+동사→동사4)

#### (1) 習→誦習<sup>5)</sup>

· 學而時習之, 不亦悅乎?(배우고서 제때에 이를 외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sup>6)</sup> 《集解》: “時者, 學者以時誦習之. 誦習以時, 學無廢業, 所以爲悅懌(也).” 〈學而1〉

#### (2) 習→講習

· 傳不習乎?(전수 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集解》: “言凡所傳之事, 得無素不講習而傳乎[之]?” 〈學而4〉

#### (3) 復→反覆

· 信近於義, 言可復也.(약속이 의에 가까우면 그 말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이다.) 《集解》: “以其言可反覆, 故曰近(於)義(也).” 〈學而13〉

#### (4) 宗→宗敬

的幾個問題)에서 同義互訓型, 同類相關型, 同類反義型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이후로, 많은 저작에서 대체로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劉國泰(1985)의 《古漢語聯合式雙音詞試析》과 韓惠言(1990)의 《〈世說新語〉複音詞構詞方式初探》에서는 ‘相同’, ‘相關’, ‘相反’이라고 불렀고, 何毓玲(1991)의 《〈毛詩正義〉訓詁語言中的雙音節》에서는 ‘相同意義聯合式’, ‘相關意義聯合式’, ‘相反意義聯合式’이라고 불렀으며, 李炳官(1991)의 《古代漢語의 複音節詞 研究—論語와 孟子를 中心으로》에서는 ‘同義互訓型’을 ‘意味相同型’이라고 고쳐 불렀다. 한편 이보다 먼저 程湘清은 《〈論衡〉複音詞研究》, 《對〈世說新語〉中聯合式複音詞的靜態描寫和動態分析》, 《〈世說新語〉複音詞研究》, 《變文複音詞研究》 등 일련의 複音節語 관련 논문에서 聯合式 複音節語를 ‘平等聯合詞’과 ‘不平等聯合詞’로 크게 양분하고, 平等聯合詞는 다시 ‘相同意義聯合詞’, ‘相關意義聯合詞’, ‘相反意義聯合詞’로, 不平等聯合詞는 다시 ‘前制後不平等聯合詞’와 ‘前制後不平等聯合詞’로 구분하였다. 또 趙克勤(1994)은 《古代漢語詞彙學》에서 ‘並列複音詞’을 ‘同義複音詞’, ‘近義複音詞’, ‘反義複音詞’, ‘同性複音詞’로 나누었다.

- 4) 화살표(→) 뒤는 복합어이고, 화살표(→) 앞은 어근을 나타냄. 이하 동일.
- 5) 화살표(→) 뒤는 《論語集解》의 복합어이고, 화살표(→) 앞은 《論語》의 원 단음절어를 가리킴. 이하 동일.
- 6) 원문의 해석은 복합어의 의미를 최대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論語集解》의 주석에 의거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인 해석과는 많이 다른 것들이 있다.

◦ 因不失其親，亦可宗也。(친한 사람이 그 친함을 잃지 않는다면 역시 존경할 만하다.) <集解>: “言所親不失其親，亦可宗敬(也).” <學而13>

(5) 惑→疑惑

◦ 四十而不惑.(마흔 살이 되어서는 의혹이 없었다.) <集解>: “不疑惑(也).” <爲政4>

(6) 立→成立

◦ 三十而立.(서른 살이 되어서는 이론 바가 있었다.) <集解>: “有所成(立)也.” <爲政4>

◦ 可與適道，未可與立.(함께 도에 이를 수는 있어도 함께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集解>: “雖能之道，未必能(以)有所(成)立(也).” <子罕31>

(7) 退→退還

◦ 退而省其私，亦足以發，回也不愚.(그가 물러난 후에 남들에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 대의를 충분히 밝히니 안회는 어리석지 않구나.) <集解>: “察其退還，與二三子說釋道義，發明大體(體)，知其不愚(也).” <爲政9>

(8) 思→尋思

◦ 學而不思則罔.(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集解>: “學而不思(思)其義(理)，(則)罔然無所得(之也).” <爲政15>

(9) 勸→勸勉

◦ 舉善而教不能，則(民)勸.(착한 사람을 등용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가르치면 백성들이 서로 권면할 것이다.) <集解>: “舉用善人而教不能者 則民勸(勉)(也).” <爲政20>

(10) 喪→喪失

◦ 喪，與其易也，寧戚.(상례는 잘 치르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이 낫다.) <集解>: “喪失於和易，不如哀戚(也).” <八佾4>

(11) 說→解說

◦ 成事不說.(이미 이루어진 일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 <集解>: “事已成，不可復解說(也).” <八佾21>

(12) 咎→非咎

◦ 既往不咎.(이미 지나간 일은 더 이상 잘못을 추궁할 수 없다.) <集解>: “事已往，不可復追(非)咎(也).” <八佾21>

(13) 喪→喪亡

◦ 二三子何患於喪乎?(너희는 어찌 선생의 성덕이 장차 상실될 것을 근심하느

나?) 《集解》: “語諸弟子言何患於夫子聖德之將廢亡邪(耶)?” 〈八佾24〉

(14) 憎→憎惡

◦ 禦人以口給, 屢償(於)民[人]. (재빠른 말솜씨로 남에게 되받아 항상 미움을 산다.) 《集解》: “佞人口辭捷給, 數爲民[人](之)所償(惡)(之也).” 〈公治長5〉

(15) 仕→仕進

◦ 子使漆雕開仕. (공자는 칠조개더러 벼슬을 하도록 시켰다.) 《集解》: “仕進之道, 未能信者, 未能究習(也).” 〈公治長6〉

(16) 雕→雕琢

◦ 朽木不可雕也.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集解》: “雕, 雕琢刻畫(也).” 〈公治長10〉

(17) 裁→裁制

◦ 不知所以裁之(也). (어떻게 제재해야 할지 모르겠다.) 《集解》: “不知所以裁制.” 〈公治長23〉

(18) 施→置施

◦ 願無伐善, 無施勞. (나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고 남에게 수고로운 일을 더하지 않기를 원한다.) 《集解》: “無[不]以勞事置施於人(也).” 〈公治長27〉

(19) 辭→辭讓

◦ 原思爲之宰, 與之粟九百, 辭. (원사가 공자의 가신이 되어 그에게 쌀 9백 말을 주자,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集解》: “(辭), 辭讓不受(也).” 〈雍也5〉

(20) 罔→誣罔

◦ 人之生也直, 罔之生也幸而免. (사람은 살면서 정직해야 하는데, 속이는 사람이 사는 것은 요행히 재앙을 모면하는 것이다.) 《集解》: “誣罔正直之道而亦生(者), 是幸而免(也).” 〈雍也19〉

◦ 可欺也, 不可罔也. (속일 수는 있으나 비방할 수는 없다.) 《集解》: “不可罔者, 不可得誣罔令自投下(也).” 〈雍也26〉

(21) 譏→教譏

◦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譏焉. (속수를 준 사람부터는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 《集解》: “言人能奉禮, 自行束脩以上, 則皆教譏之(也).” 〈述而7〉

◦ 忠焉, 能勿譏乎?(그에게 충성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集解》: “有所忠, 必欲教譏之(也).” 〈憲問7〉

(22) 隱→隱匿

◦ 二三子以我爲隱(子)乎? 吾無隱乎爾. (너희는 내가 숨긴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너희에게 숨긴 적이 없다.) <集解>: “聖人知廣道深, 弟子學之不能及, 以爲有所隱匿, 故解之(也).” <述而24>

◦ 言之之而不言謂之隱.(말을 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는 것을 숨긴다고 말한다.)  
<集解>: “隱匿不盡情實(也).” <季氏6>

(23) 稱→稱言

◦ 三以天下讓, 民無得而稱焉.(여러 차례 천하를 사양하였으나 백성들이 그를 칭찬할 수 없었다.) <集解>: “其讓隱, 故無得而稱言(者), 所以爲至德也.” <泰伯1>

(24) 遺→遺忘

◦ 故舊不遺, 則民不偷.(옛 친구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각박해지지 않는다.) <集解>: “不遺忘其故舊, 行之美者(也).” <泰伯2>

(25) 疾→疾惡

◦ 人而不仁, 疾之已甚, 亂也.(인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너무 심하게 증오하면 난리를 일으킬 것이다.) <集解>: “疾惡太甚, 亦使其爲亂(也).” <泰伯10>

(26) 間→間厠

◦ 禹, 吾無間然矣.(우는 내가 트집잡을 수 없다.) <集解>: “孔子推禹功德之盛(美), 言己(己)不能復間(閒)厠其間(間)(也).” <泰伯21>

(27) 竭→竭盡

◦ 我叩其兩端而竭焉.(나는 일의 처음과 끝 양단으로 말해주는데, 아는 것을 다 말해준다.) <集解>: “我則發事之終始兩端以語之, 竭盡所知, 不爲有愛(也).” <子罕8>

(28) 約→節約

◦ 博我以文, 約我以禮.(문헌전적으로 내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예절로 내 행동을 단속하였다.) <集解>: “言夫子既以文章開博我, 又以禮(禮)節(節)約(約)我.” <子罕11>

(29) 進→進益

◦ 吾見其進也, 未見其止也.(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을 보았지 그가 멈추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集解>: “孔子謂顏淵進益未止, 痛惜之甚(也).” <子罕21>

(30) 從→順從

◦ 法語之言, 能無從乎?(정도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集解>: “人有過以正道告之, 口無不順從之.” <子罕24>

(31) 繹→尋繹

◦ 繹之爲貴.(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集解>: “能尋繹行之, 乃爲貴

(也).”〈子罕24〉

(32) 伎→伎害

◦不伎不求, 何用不臧?(해치지 않고 욕심 내지 않는데 어째서 착하지 않은가?)

《集解》: “言不伎害, 不食求, 何用爲不善.”〈子罕28〉

(33) 求→貪求

◦不伎不求, 何用不臧?(해치지 않고 욕심 내지 않는데 어째서 착하지 않은가?)

《集解》: “言不伎害, 不貪求, 何用爲不善.”〈子罕28〉

(34) 彫→彫傷(‘彫’는 ‘凋’의 通假字임)

◦歲寒, 然後知松栢之後彫也.(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 측백나무가 조락하지 않음을 알 것이다.) 《集解》: “大寒之歲, 衆木皆死, 然後知松栢小彫傷也.”〈子罕29〉

(35) 惑→惑亂

◦知者不惑.(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 《集解》: “不惑亂(也).”〈子罕

30〉

(36) 執→執持

◦莛圭, 鞠躬如也, 如不勝.(홀을 잡을 때에는 국궁 하듯 몸을 굽히고 마치 감당치 못한 듯 하였다.) 《集解》: “爲君使(以)聘問隣國, 莛莛君之圭.”〈鄉黨4〉

(37) 間→非間

◦人不間於其父母·兄弟之言.(사람들이 그의 부모 형제의 말을 비난하지 못했다.) 《集解》: “故人不得有非間之言(也).”〈先進5〉

(38) 復→反復

◦南容三復白圭.(남용이 백규를 세 차례 반복해서 읽었다.) 《集解》: “南容讀《詩》至此, 三反復之, 是其心慎言也.”〈先進6〉

(39) 改→更改

◦何必改作?(어째서 반드시 고쳐지어야 하는가?) 《集解》: “何乃復更改作(也)?”〈先進14〉

(40) 億→億度

◦賜不受命, 而貨殖焉, 億則屢中.(자공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재물을 중식하였으며 예측하면 항상 적중하였다.) 《集解》: “賜不受教命, 唯財貨是殖, 億度是非, 蓋美回所以勸賜也.”〈先進18〉

(41) 賊→賊害

◦賊夫人之子.(남의 자제를 해치는구나.) 《集解》: “所以爲賊害(人也).”〈先進2

3)

· 幼而不遜[孫]弟，長而無述焉，老而不死，是爲賊!(이 사람은 도덕을 해치는 자이다.) 《集解》: “賊謂賊害(也).” 〈憲問43〉

(42) 詠→歌詠

· 風乎舞雩，詠而歸.(무우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集解》: “風涼於舞雩之下，歌詠先王之道，〈而〉歸夫子之門(也).” 〈先進24〉

(43) 亡→死亡

· 人皆有兄弟，我獨亡.(남들은 다 형제가 있는데 나만 유독 죽었구나.) 《集解》: “牛兄桓魋行惡，(死)亡無日，我爲無兄弟(也).” 〈顏淵5〉

(44) 慮→念慮

· 慮以下人.(남의 아래에 처할 것을 생각한다.) 《集解》: “其(知)(念)慮常欲以下人(也).” 〈顏淵20〉

(45) 選→選擇

· 舜有天下，選於衆，舉臯陶，不仁者遠矣。湯有天下，選於衆，舉伊尹，不仁者遠矣。(순이 천하를 얻자 사람들에서 선택하여 고요를 등용하니 불인한 자들이 멀어졌다.) 《集解》: “言舜·湯有天下，選擇於衆，舉臯陶·伊尹，則不仁者遠矣，仁者至矣.” 〈顏淵22〉

(46) 令→教令

· 其身正，不令而行；其身不正，雖令不從.(자신이 바르면 영을 내리지 않아도 시행된다.) 《集解》: “令，教令也.” 〈子路6〉

(47) 棄→棄去

· 雖之夷狄，不可棄也.(비록 오랑캐 땅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集解》: “雖之夷狄，無禮義之處，猶不可棄去而不行(也).” 〈子路19〉

(48) 勞→勞來(‘來’는 ‘勑’의 通假字임)

· 愛之，能勿勞乎?(그를 사랑하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集解》: “言人有所愛，必欲勞來之.” 〈憲問7〉

(49) 方→比方

· 子貢方人.(자공이 남을 비평하였다.) 《集解》: “此方人也.” 〈憲問29〉

(50) 濫→濫溢

· 君子固窮，小人窮斯濫矣.(소인은 곤궁하면 정도를 벗어난다.) 《集解》: “君子固亦有窮時，但不如小人窮(則)濫溢爲非(也).” 〈衛靈公2〉

(51) 知→了知



◦君子不可小<sub>レ</sub>知, 而可大受也; 小人不可大受(也), 而可小知也.(군자는 작은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큰 일을 맡을 수 있고, 소인은 큰 일을 맡을 수 없지만 작은 일을 이해할 수 있다.) 《集解》: “君子之道深遠, 不可以小<sub>レ</sub>知而可大受(也), 小人之道淺近, 可以小<sub>レ</sub>知而不可大受也.” 〈衛靈公34〉

## (52) 相→輔相

◦危而不持, 顛而不扶, 則將焉用彼<sub>レ</sub>相矣?(위험할 때 잡아주지 않고 넘어질 때 부축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보좌인을 쓰겠는가?) 《集解》: “言<sub>レ</sub>輔相人者, 當(能)持危扶顛, 若不能, 何用相爲(也)?” 〈季氏1〉

## (53) 侮→侮慢

◦恭則不<sub>レ</sub>侮.(공경하면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 《集解》: “不見<sub>レ</sub>侮慢(也).” 〈陽貨5〉

## (54) 怨→怨刺

◦可以怨.(군주의 정치를 풍자할 수 있다.) 《集解》: “怨刺上政.” 〈陽貨8〉

## (55) 覆→傾覆

◦惡利口之<sub>レ</sub>覆邦家(者).(교묘한 입으로 나라를 전복시키는 사람을 싫어한다.) 《集解》: “利口之人, 多言少實, 苟能悅(說)媚時君, 傾覆(其)國家(也).” 〈陽貨15〉

## (56) 稱→稱說

◦惡<sub>レ</sub>稱人之惡者.(남의 악행을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集解》: “好<sub>レ</sub>稱說人之惡, 所以爲惡(也).” 〈陽貨21〉

## (57) 窒→窒塞

◦惡果敢而<sub>レ</sub>窒者.(과감해서 꼭 막힌 사람을 싫어한다.) 《集解》: “窒, 窒塞也.” 〈陽貨21〉

## (58) 廢→廢棄

◦廢中權.(자기를 버려서 화를 면하는 것은 권도에 부합한다.) 《集解》: “遭世亂, 身(自)廢棄以免患, 合於權也.” 〈微子8〉

## (59) 交→交接

◦子夏之門人問<sub>レ</sub>交於子張.(자하의 문인이 자장에게 교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集解》: “(問), 問與人交接之道(也).” 〈子張3〉

## (60) 文→文飾

◦小人之過也必<sub>レ</sub>文.(소인은 잘못하면 반드시 꾸며댄다.) 《集解》: “文飾其過, 不言(其)情實(也).” 〈子張8〉

## (61) 倦→厭倦

○君子之道，孰先傳焉？孰後倦焉？(어느 것이 나중이 되어 가르침을 싫증낼까?)  
 《集解》：“言先傳業者，必〈先〉厭倦。”〈子張12〉

(62) 散→離散

○上失其道，民散久矣。(위정자가 정도를 잃어 민심이 흩어진지 오래되었다.)  
 《集解》：“民之離散，爲輕漂犯法，乃上之所爲(也)，非民之過(也).”〈子張19〉

(63) 墜→墜落

○文武之道，未墜於地。(문왕과 무왕의 도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集解》：“文武之道，未墜落於地.”〈子張22〉

(64) 絕→絕棄

○人雖欲自絕(也)，其何傷於日月乎？(사람이 비록 스스로 끊는다 해도 일월에게 무슨 손상을 주는가?)  
 《集解》：“言人雖自欲(欲自)絕棄於日月，其何能傷之乎？”〈子張24〉

(65) 蔽→隱蔽

○帝臣不蔽(상제의 신하 걸은 죄가 있어 은폐할 수가 없다.)  
 《集解》：“言桀居帝臣之位(也)，(有)罪過不可隱蔽.”〈堯曰1〉

이밖에 經文에 나온, 同義의 두 單音節語를 語根으로 삼아 複合語로 만든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6) 啓, 發→啓發

○不憤不啓, 不悱不發.(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고, 말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는다.)  
 《集解》：“孔子與人言，必待其人心憤憤，口悱悱，乃後啓發爲(之)說(之)(也).”〈述而8〉

(67) 憂, 懼→憂懼

○君子不憂不懼.(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集解》：“牛兄桓魋將爲亂，牛自宋來學，常憂懼，故孔子解之.”〈顏淵4〉

○內省不疚，夫何憂何懼？(안으로 살펴서 잘못이 없는데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集解》：“自省無罪惡，無可憂懼(也).”〈顏淵4〉

(68) 區, 別→區別

○譬諸草木，區以別矣.(초목에 비유한다면 각 부류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集解》：“言大道與小道殊異，譬如草木，異類區別，言學當以次(也).”〈子張12〉

이밖에 원래는 명사이지만 詞類活用으로 인해 동사로 쓰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9) 疾→患疾

○好勇疾貧，亂也。(용맹을 좋아하고 빈천을 싫어하는 사람은 난리를 일으킬 것이다.) 《集解》：“好勇之人，而患疾已(之)貧賤者，必將爲亂(也).”〈泰伯10〉

## 1.2. 형용사+형용사→형용사

(1) 悅→悅懌

○學而時習之，不亦悅(說)乎?(배우고서 제때에 이를 외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集解》：“誦習以時，學無廢業，所以爲悅(說)懌(也).”〈學而1〉

(2) 敬→敬慎

○敬事而信。(일 처리를 공경하고 신중하게 하고, 백성에게 성실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集解》：“爲國者，舉事必敬慎，與民必誠信(也).”〈學而5〉

(3) 信→誠信

○敬事而信。(일 처리를 공경하고 신중하게 하고, 백성에게 성실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集解》：“爲國者，舉事必敬慎，與民必誠信(也).”〈學而5〉

(4) 威→威嚴

○君子不重則不威：學則不固。(군자가 장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배운 것이 견고하지 못하다.) 《集解》：“言人不敬(能敦)重，既無威嚴[嚴]，又不能堅固，識其義理(也).”〈學而8〉

(5) 固→堅固

○君子不重則不威：學則不固。(군자가 장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배운 것이 견고하지 못하다.) 《集解》：“言人不敬(能敦)重，既無威學[嚴]，又不能堅固，識其義理(也).”〈學而8〉

(6) 枉→邪枉(枉)

○舉直錯諸枉(枉)，則民服。(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사악한 사람을 물리치면 백성들이 복종할 것이다.) 《集解》：“舉(用)正直之人(用之)，廢置邪枉(枉)之人，則民服其上(也).”〈爲政19〉

○舉直錯諸枉(枉)，能使枉(枉)者直。(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사악한 사람을 물리치면 사악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 수 있다.) 《集解》：“舉正直之人用之，廢置邪枉(枉)之人，則皆化爲直(也).”〈顏淵22〉

(7) 直→正直

◦ 舉直錯諸枉〔枉〕, 則民服.(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사악한 사람을 물리치면 백성들이 복종할 것이다.) 《集解》: “舉(用)正直之人(用之), 廢置邪枉(枉)之人, 則民服其上(也).” 〈爲政19〉

◦ 人之生也直, 罔之生也幸而免.(사람은 살면서 정직해야 하는데, 속이는 사람이 사는 것은 요행히 재앙을 모면하는 것이다.) 《集解》: “認罔正直之道而亦生(者), 是幸而免(也).” 〈雍也19〉

◦ 舉直錯諸枉〔枉〕, 能使枉〔枉〕者直.(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사악한 사람을 물리치면 사악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 수 있다.) 《集解》: “舉正直之人用之, 廢置邪枉(枉)之人, 則皆化爲直(也).” 〈顏淵22〉

(8) 威→哀戚

◦ 喪, 與其易也, 寧戚.(상례는 잘 치르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이 낫다.) 《集解》: “喪失於和易, 不如哀戚(也).” 〈八佾4〉

(9) 敬→恭敬

◦ 見志不從, 又敬不違.(부모의 뜻이 자기를 따르지 않음을 알아도 마땅히 공경하고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集解》: “見志(者), 見父母志有不從已(己)諫之色, 則又當恭敬, 不敢違父母意而遂已(之)諫(也).” 〈里仁18〉

(10) 約→儉約

◦ 以約失之者鮮矣.(검약하면서 잘못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集解》: “俱不得中(也), 奢則驕溢招禍, 儉約無憂患(也).” 〈里仁23〉

(11) 給→捷給

◦ 禦人以口給, 屢憎(於)民〔人〕.(재빠른 말솜씨로 남에게 되받아 항상 미움을 산다.) 《集解》: “佞人口辭捷給, 數爲民〔人〕(之)所憎(惡)(之也).” 〈公治長5〉

(12) 敬→敬肅

◦ 居敬而行簡, 以臨其民, 不亦可乎?(몸가짐을 엄숙하게 하고 일 처리를 간략하게 해서 백성에게 임하면 괜찮지 않은가?) 《集解》: “居身敬肅, 臨下寬略, 則可(也).” 〈雍也2〉

(13) 果→果敢

◦ 由也果.(중유는 과감하다.) 《集解》: “果謂果敢決斷(也).” 〈雍也8〉

◦ 行必果.(행동은 반드시 과감하게 해야 한다.) 《集解》: “行必果, 所欲行必果敢爲之.” 〈子路20〉

(14) 衰→衰老

○ 甚矣吾衰也!(내가 너무 심하게 노쇠하였구나.) 《集解》: “孔子衰老, 不復夢見周公(也).” 〈述而5〉

(15) 怪→怪異

○ 子不語怪, 力, 亂, 神.(공자는 괴이한 것, 무력, 변란, 귀신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다.) 《集解》: “怪, 怪異也.” 〈述而21〉

(16) 儉→儉薄

○ 故舊不遺, 則民不儉.(옛 친구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각박해지지 않는다.) 《集解》: “則民皆化之, 起爲仁厚之行, 不儉薄(也).” 〈泰伯2〉

(17) 愿→謹愿

○ 侗而不愿.(아는 것이 없으면서 성실하지 못하다.) 《集解》: “侗, 未成器之人(也), 宜謹愿(也).” 〈泰伯16〉

(18) 巽→恭巽[孫]

○ 巽與之言, 能無說乎?(공손하고 삼가는 말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集解》: “巽, 恭也, 謂恭巽[孫]謹敬之言. 〈子罕24〉

(19) 謹→謹敬

○ 便便言, 唯謹爾.(말을 유창하게 하나 삼가고 공경할 뿐이다.) 《集解》: “便便, 辯也, 雖辯而謹敬(也).” 〈鄉黨1〉

(20) 僻→邪僻

○ 師僻也[也]辟[也].(전손사는 치우친다.) 《集解》: “子張才過人, 失在邪僻[辟]文過(也).” 〈先進18〉

(21) 空→空匱

○ 回也其庶乎, 屢空.(안회는 도에 가까우나 항상 궁핍하구나.) 《集解》: “言回庶幾聖道, 雖數空匱而樂在其中(矣).” 〈先進18〉

(22) 倦→懈倦

○ 居之無倦, 行之以忠.(관직을 맡으면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정무를 집행해야 한다.) 《集解》: “居之於身, 無得懈倦, 行之於民, 必以忠信(也).” 〈顏淵14〉

(23) 迂→迂遠

○ 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名)?(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선생님은 사정에 어두우시군요. 어찌서 명분을 바로잡아야 합니까?) 《集解》: “君子於其所不知, 當闕而勿據, 今由不知正名之義, 而謂之迂遠(也).” 〈子路3〉

(24) 殘→殘暴

○ 善人爲邦百年, 亦可以勝殘去殺矣.(선한 사람이 백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 잔

포한 사람을 이기고 살육을 없앤다.) <集解>: “勝殘, 勝殘暴之人, 使不爲惡也.” <子路11>

## (25) 固→固陋

◦非敢爲佞也, 疾固也.(감히 말 잘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루함을 통탄하는 것이다.) <集解>: “病世固陋, 欲行道以化人(也)[之].” <憲問32>

## (26) 淫→淫亂

◦鄭聲淫, 佞人殆.(정 나라의 음악은 음란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위태롭다.) <集解>: “而使人淫亂危殆, 故當放遠(之)(也).” <衛靈公11>

## (27) 殆→危殆

◦鄭聲淫, 佞人殆.(정 나라의 음악은 음란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위태롭다.) <集解>: “而使人淫亂危殆, 故當放遠(之)(也).” <衛靈公11>

## (28) 寡→寡少

◦不患寡而患不均.(백성이 적어지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정치가 균등하지 못함을 근심한다.) <集解>: “不患土地人民之寡少, 患政治之不均平.” <季氏1>

## (29) 均→均平

◦不患寡而患不均.(백성이 적어지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정치가 균등하지 못함을 근심한다.) <集解>: “不患土地人民之寡少, 患政治之不均平.” <季氏1>

◦蓋均無貧.(균등하면 빈곤이 없게 된다.) <集解>: “政教均平, 則不(患)貧矣.” <季氏1>

## (30) 蕭→蕭敬

◦吾恐季孫之憂, 不在(於)顯矣, 而在蕭牆之內也.(나는 계손의 근심이 전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다는 것이 두렵다.) <集解>: “君臣相見之禮, 至屏而加蕭敬焉, 是以謂之蕭牆.” <季氏1>

## (31) 安→安寧(寧)

◦安無傾.(안녕하면 나라가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다.) <集解>: “小大安寧(寧), 不傾危(也)矣.” <季氏1>

## (32) 和→和同

◦和無寡.(화목하면 백성이 적어짐을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集解>: “上下和同, 不患寡矣.” <季氏1>

## (33) 狂→狂妄

◦好剛不好學, 其蔽也狂.(굳셈만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오만방자한 것이다.) <集解>: “狂妄抵觸人.” <陽貨7>

(34) 厲→矜厲

◦色厲而內荏.(겉모습은 위엄이 있으나 속마음은 유약하다.) 《集解》: “謂外自矜厲而內柔佞(者).” 〈陽貨10〉

(35) 勤→勤勞

◦四體不動, 五穀不分, 孰爲夫子?(사지로 노동을 하지 않는다.) 《集解》: “丈人曰[云]不勤勞四體, 不分殖[植]五穀, 誰爲夫子而索之耶?” 〈微子7〉

(36) 和→和穆

◦動之斯和.(그들을 동원하면 화목할 것이다.) 《集解》: “安之則遠者來至, 動之則莫不和穆(也).” 〈子張25〉

(37) 榮→榮顯

◦其生也榮, 其死也哀.(그가 살아있을 때는 명성을 날렸고, 죽어서는 사람들이 애통해하였다.) 《集解》: “故能生則榮顯, 死則(見)哀痛(矣也).” 〈子張25〉

(38) 哀→哀痛

◦其生也榮, 其死也哀.(그가 살아있을 때는 명성을 날렸고, 죽어서는 사람들이 애통해하였다.) 《集解》: “故能生則榮顯, 死則(見)哀痛(矣也).” 〈子張25〉

(39) 公→公平

◦公則(民)說.(공정하면 백성들이 기뻐한다.) 《集解》: “言政教公平, 則民說矣.” 〈堯曰1〉

(40) 吝→吝嗇

◦猶之與人也, 出內[納]之吝, 謂之有司.(마찬가지로 남에게 재물을 줄 때 출납이 인색한 사람을 유사라고 한다.) 《集解》: “謂財物(也), 俱當與人, 而吝嗇於出內[納]惜難之, 此有司之任耳, 非人君之道(也).” 〈堯曰2〉

이밖에 원래는 형용사이지만 詞類活用으로 인해 다른 품사로 쓰인 것도 있다.

(41) 齊→齊整

◦導[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가지런하게 하면 백성들은 죄를 모면할 수 있지만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集解》: “齊整之以刑罰(也).” 〈爲政3〉

(42) 羞→羞辱

◦不恒其德, 或承之羞.(덕행을 항상 하지 않으면 수치스런 일이 뒤따른다.) 《集解》: “言德無常, 則羞辱承之.” 〈子路22〉

위에서 ‘齊整’은 동사로 사용되었고, ‘羞辱’은 명사로 사용되었다.

## 1.3. 명사+명사→명사

## (1) 言→言語

◦ 巧言令色, 鮮矣仁!(말을 교묘하게 하고 낯빛을 좋게 꾸미는 사람은 인덕이 적을 것이다) 《集解》: “巧言, 好其言語.” 〈學而3〉

◦ 察言而觀色.(남의 말을 살피고 남의 낯빛을 잘 볼 수 있다.) 《集解》: “察言語, 見顏色.” 〈顏淵20〉

## (2) 道→道德

◦ 就有道而正焉.(도덕을 갖춘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集解》: “有道, 有道德者(也).” 〈學而14〉

## (3) 德→道德

◦ 導(道)之以德.(도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 《集解》: “德謂道德.” 〈爲政3〉

## (4) 疾→疾病

◦ 父母唯其疾之憂.(부모는 오직 자식의 질병을 근심한다.) 《集解》: “唯疾病然後使父母憂(耳也).” 〈爲政6〉

## (5) 文→文章

◦ 文獻不足故也.(문헌전적과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集解》: “文章賢才不足故也.” 〈八佾9〉

◦ 博我以文, 約我以禮.(문헌전적으로 내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예절로 내 행동을 단속하였다.) 《集解》: “言夫子既以文章開博我, 又以禮(禮)節節約我.” 〈子罕11〉

)

## (6) 器→器量

◦ 管仲之器小哉!(관중의 그릇은 작도다!) 《集解》: “言其器量小也.” 〈八佾22〉

## (7) 黨→黨類

◦ 民(人)之過也, 各於其黨.(사람의 허물에는 각기 부류가 있다) 《集解》: “黨, 黨類(也).” 〈里仁7〉

## (8) 惠→恩惠

◦ 小人懷惠.(소인은 은혜를 생각한다.) 《集解》: “惠, 恩惠(也).” 〈里仁11〉

## (9) 口→口辭

◦ 禦人以口給, 屢憎(於)民(人).(재빠른 말솜씨로 남에게 되받아 항상 미움을 산다.) 《集解》: “佞人(口)辭捷給, 數爲民(人)(之)所憎(惡)(之也).” 〈公冶長5〉

## (10) 章→文章



◦斐然成章.(상당하게 문장을 이루었다.) 《集解》: “妄(作)穿鑿以成文章.” 〈公冶長23〉

(11) 親→親屬

◦君子篤於親, 則民興於仁.(군자가 친속을 후대하면 백성들이 인한 기쁨을 일으킬 것이다.) 《集解》: “君能厚於親屬.” 〈泰伯2〉

(12) 藝→伎藝

◦吾不試, 故藝.(나는 등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예를 할 줄 안다.) 《集解》: “言孔子自云我不見用, 故多(能)伎藝(也).” 〈子罕7〉

(13) 冕→冕冠

◦子見齊衰者·冕衣裳者與瞽者.(공자가 재취를 입은 사람과 면류관을 쓰고 조복을 입은 사람을 만나다.) 《集解》: “冕者, (冕)冠也, 大夫之服(也).” 〈子罕10〉

(14) 禮→禮(禮)節

◦博我以文, 約我以禮.(문헌전적으로써 내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예절로써 내 행동을 단속하였다.) 《集解》: “言夫子既以文章開博我, 又以禮(禮)節節約我.” 〈子罕11〉

(15) 帥→將帥

◦三軍可奪帥也, 匹夫不可奪志也.(삼군한테서 장수를 빼앗을 수는 있지만 평민한테서 그 뜻을 빼앗을 수는 없다.) 《集解》: “三軍雖衆, 人心非[不]一, 則其將帥可奪(之)而敢(之).” 〈子罕26〉

(16) 貨→財貨

◦賜不受命, 而貨殖焉, 億則屢中.(자공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재물을 증식하였으며 예측하면 항상 적중하였다.) 《集解》: “賜不受教命, 唯財貨是殖, 億度是非, 蓋美回所以勸賜也.” 〈先進18〉

(17) 膚→皮膚

◦浸潤之譖, 膚受之愆, 不行焉.(물이 점점 스며드는 듯한 참소와 피부를 찌르는 듯한 하소연이 통하지 않게 한다.) 《集解》: “膚受(之)愆, 皮膚外語, 非其內實(也).” 〈顏淵6〉

(18) 情→情實

◦上好信, 則民莫敢不用廋.(위정자가 믿음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성실로써 위정자를 대 하지 않을 수 없다.) 《集解》: “情, 廋實也. 言民化於上, 各以(廋)實應(也).” 〈子路4〉

(19) 恥→恥辱

◦邦無道，穀，**私**也。(나라가 어지러울 때 봉록을 받는 것은 치욕이다.) 《集解》： “君無道而在其朝，食其祿，是**私**也。” 〈憲問1〉

(20) 力→勢力

◦吾**力**猶能肆諸市朝。(내 힘은 공백료를 죽여 저자거리에 내걸게 할 수 있다.) 《集解》： “吾**力**猶能辨子路之無罪於季孫，使之誅(伯)寮而肆之也。” 〈憲問36〉

(21) 怨→怨咎

◦躬自厚而薄責於人，則遠怨矣。(자신은 엄격하게 질책하고 남은 적게 질책하면 원한을 멀리할 것이다.) 《集解》： “責已(己)厚，責人薄，所以遠怨咎也。” 〈衛靈公15〉

(22) 類→種類

◦有教無類(교육을 받는데는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 《集解》： “言人(所)在見教，無有種類也。” 〈衛靈公39〉

(23) 力→才事[力]

◦陳**力**就列，不能者止。(자기의 역량을 펼쳐서 직무를 맡고, 맡을 수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다.) 《集解》： “言當陳(其)才事[力]，度已(己)所任，以就其位，不能則當止也。” 〈季氏1〉

(24) 道→道路

◦道聽而塗說，德之棄也。(길에서 들은 것을 전해서 말하는 것은 덕을 저버리는 것이다.) 《集解》： “聞之於道，則傳而說之。” 〈陽貨12〉

(25) 廉→廉隅

◦古之矜也廉，今之矜也忿戾。(옛날의 긍지는 방정하였는데, 지금의 긍지는 무지막지하다.) 《集解》： “有廉隅也。” 〈陽貨14〉

(26) 慮→思慮

◦言中倫，行中慮(말은 윤리에 부합하고 행동은 생각에 부합한다.) 《集解》： “但能言應倫理，行應思慮。” 〈微子8〉

#### 1.4. 동사+동사→명사

(1) 憂→憂患

◦仁者不憂(인한 사람은 우환이 없다.) 《集解》： “無憂患也。” 〈子罕30〉

(2) 命→教命

◦ 賜不受命，而貨殖焉，億則屢中。(자공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재물을 증식하였으며 예측하면 항상 적중하였다.) 《集解》：“賜不受教命，唯財貨是殖，億度是非，蓋美回所以勸賜也。”〈先進18〉

### 1.5. 부사+부사→부사

#### (1) 將→將且

◦ 鳥之將死，其鳴也哀；人之將死，其言也善。(새가 죽으려 할 때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으려 할 때는 그 말이 착하다.) 《集解》：“欲戒敬子：言我將(且)死，言善可用(也).”〈秦伯4〉

#### (2) 庶→庶幾

◦ 回也其庶乎，屢空。(안회는 도에 가까우나 항상 궁핍하구나.) 《集解》：“言回庶幾聖道，雖數空匱而樂在其中(矣).”〈先進18〉

### 1.6. 명사+명사→동사

#### (1) 權→權量

◦ 可與立，未可與權。(함께 설 수는 있어도 함께 경중을 잴 수는 없다.) 《集解》：“雖能有所立，未必能權量其輕重之極(也).”〈子罕31〉  
‘權量’은 원래 명사이지만 詞類活用으로 인해 동사로 쓰였다.

### 1.7. 동사+동사→형용사

#### (1) 逸→超逸

◦ 逸民：伯夷·叔齊·虞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절개가 뛰어난 사람은 백이, 숙제, 우중, 이일, 주장, 유하혜, 소련 등이다.) 《集解》：“逸民者，節行超逸者(也).”〈微子8〉

### 1.8. 동사+동사→부사

#### (1) 復→復重

◦ 舉一隅(而示之)不以三隅反, 則(吾)不復(也). (한 모퉁이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세 모퉁이로 회답하지 못하면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集解》: “說則舉一隅以語之, 其人不思其類, 則不復重教之(也).” 〈述而8〉

## 2. 同類相關型

‘同類相關型’은 聯合式 複合語의 두 어근이 포함하는 의미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결합 형태를 말한다. 품사와 구성 방식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 형용사+형용사→형용사

#### (1) 殆→疲殆

◦ 思而不學則殆.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集解》: “不學而思, 終卒不得, 〈徒〉使人精神疲殆(也).” 〈爲政15〉

#### (2) 易→和易

◦ 喪, 與其易也, 寧戚. (상례는 잘 치르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이 낫다.) 《集解》: “易, 和易也. …… 喪失於和易, 不如哀戚(也).” 〈八佾4〉

#### (3) 仁→仁厚

◦ 君子篤於親, 則民興於仁. (군자가 친속을 후대하면 백성들이 인한 기풍을 일으킬 것이다.) 《集解》: “則民皆化之, 起爲仁厚之行, 不儻薄(也).” 〈泰伯2〉

#### (4) 少→少小

◦ 吾少也賤, 故多能鄙事. (내가 어려서 빈천하였기 때문에 많은 비천한 일을 할 줄 안다.) 《集解》: “我少小貧賤, 常自執事, 故多能爲鄙人之事.” 〈子罕6〉

#### (5) 賤→貧賤

◦ 吾少也賤, 故多能鄙事. (내가 어려서 빈천하였기 때문에 많은 비천한 일을 할 줄 안다.) 《集解》: “我少小貧賤, 常自執事, 故多能爲鄙人之事.” 〈子罕6〉

#### (6) 愚→愚直

◦ 柴也愚. (고시는 우직하다.) 《集解》: “愚, 愚直之愚(也).” 〈先進18〉

#### (7) 退→謙退

◦ 求也退, 故進之. (염구는 물러나는 성격이므로 그를 나아가게 했다.) 《集解》: “言冉有性謙退.” 〈先進20〉

(8) 遠→高遠

◦ 浸潤之譖，膚受之愬，不行焉，可謂遠也已矣。(물이 점점 스며드는 듯한 참소와 피부를 찌르는 듯한 하소연이 통하지 않게 한다면 덕행이 고원하다고 말할만하다.) 《集解》：“無此二者，非但爲明，其德行高遠，人莫能及(之).”〈顏淵6〉

(9) 驕→驕矜

◦ 君子泰而不驕，小人驕而不泰。(군자는 태연하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나 태연하지 않다.) 《集解》：“小人物忌，而實自驕矜(也).”〈子路26〉

(10) 矜→矜莊

◦ 君子矜而不爭。(군자는 긍지가 있어 다투지 않는다.) 《集解》：“矜，矜莊也.”〈衛靈公22〉

經文에 나온, 의미상 연관된 두 單音節語를 語根으로 삼아 複合語로 만든 것도 있다.

(11) 富，貴→富貴

◦ 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의롭지 않으면서 부유하고 존귀한 것은 나에게서 뜬구름과 같다.) 《集解》：“富貴而不以義者，於我如浮雲，非已(己)之有(也).”〈述而16〉

2.2. 명사+명사→명사

(1) 刑→刑罰

◦ 導(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가지런하게 하면 백성들은 죄를 모면할 수 있지만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集解》：“齊整之以刑罰(也).”〈爲政3〉

(2) 祿→祿位

◦ 子張學干祿。(자장이 녹위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했다.) 《集解》：“祿，祿位也.”〈爲政18〉

(3) 禘→禘祫

◦ 禘自既灌而往者，吾不欲觀之矣。(제 제사를 지낼 때 땅에 술을 붓는 의식 이후는 내가 보고 싶지 않다.) 《集解》：“禘祫之禮(禮)，爲序昭穆(也).”〈八佾10〉

(4) 愆→愆愆

◦ 棖也愆，焉得剛?(신정은 욕심이 많은데 어찌 굳세다고 할 수 있겠는가?) 《集

解>: “忿, 多憤然(之也).” <公治長12>

(5) 神→鬼神

◦ 子不語怪, 力, 亂, 神.(공자는 괴이한 것, 무력, 변란, 귀신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다.) <集解>: “神謂鬼神之事(也).” <述而21>

(6) 德→德義

◦ 巧言亂德.(교묘한 말은 덕을 어지럽힌다.) <集解>: “巧言利口, 則亂德義.” <衛靈公27>

(7) 祿→爵祿

◦ 祿之去公室五世矣.(작록이 공실을 떠난 지 5대가 되었다.) <集解>: “於是政在大夫, 爵祿不從君出, 至定公爲五世也[矣].” <季氏3>

(8) 歲→歲月

◦ 日月逝矣, 歲不我與.(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集解>: “年老, 歲月已往, 當急仕(也).” <陽貨1>

經文에 나온, 의미상 연관된 두 單音節語를 語根으로 삼아 複合語로 만든 것도 있다.

(9) 言, 行→言行

◦ 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矣.(말은 잘못을 적게 하고, 행동은 후회를 적게 하면 녹봉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集解>: “言行如此, 雖不得祿, <亦同>得祿之道(也).” <爲政18>

◦ 邦有道, 危言危行.(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말과 행동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 <集解>: “邦有道, 可以厲言行也.” <憲問3>

## 2.3. 형용사+형용사→명사

(1) 貧→貧賤

◦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빈궁하면서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集解>: “樂謂志於道, 不以貧(賤)爲憂苦(也).” <學而15>

◦ “好勇疾貧, 亂也.(용맹을 좋아하고 빈천을 싫어하는 사람은 난리를 일으킬 것이다.) <集解>: “好勇之人, 而患疾已(己)(之)貧賤者, 必將爲亂(也).” <泰伯10>

(2) 富→富貴

◦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부는 만일 얻을 수 있다면, 비록 말채찍

을 잡는 작은 벼슬이라도 나는 하겠다.) 《集解》: “富貴不可求而得者[之](也), 當脩[修]德以得之[矣].” 〈述而12〉

(3) 忠→忠信

◦居之無倦, 行之以忠.(관직을 맡으면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정무를 집행해야 한다.) 《集解》: “居之於身, 無得懈倦, 行之於民, 必以忠信[也].” 〈顏淵14〉

또 經文에 나온, 의미상 연관된 두 單音節語를 語根으로 삼아 複合語로 만든 것도 있다.

(4) 富, 貴→富貴

◦富與貴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부와 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거처하지 않겠다.) 《集解》: “不以其道得富貴, 不處也.” 〈里仁5〉

(5) 貧, 賤→貧賤

◦貧與賤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 不去也.(빈과 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떠나지 않겠다.) 《集解》: “時有否泰, 故君子履道而反貧賤, 此則不以其道得之者也, 雖是人之所惡, 不可違而去也[之].” 〈里仁5〉

위의 ‘貧賤’·‘富貴’·‘忠信’ 등은 원래 형용사이지만 詞類活用으로 인해 명사로 사용되었다.

2.4. 동사+동사→동사

(1) 愛→愛養

◦節用而愛人.(쓰는 것을 줄이고 백성을 사랑한다.) 《集解》: “節用不奢侈, 國以民爲本, 故愛養也[之].” 〈學而5〉

(2) 聞→聞習

◦子在齊聞韶樂, 三月不知肉味.(공자는 제 나라에서 (소)라는 음악을 배우면서 석 달 동안 고기맛을 알지 못했다.) 《集解》: “孔子在齊, 聞韶樂之盛美, 故(忽)忘於肉味[也].” 〈述而14〉

(3) 讓→讓隱

◦三以天下讓, 民無得而稱焉.(여러 차례 천하를 사양하였으나 백성들이 그를 칭찬할 수 없었다.) 《集解》: “其讓隱, 故無得而稱言之者, 所以爲至德也.” 〈泰伯1〉

## (4) 賊→賊亂

◦ 鄉原，德之賊也。(향원은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集解》：“所至之鄉，輒原其人情，而爲(已)意以待之，是賊亂德(者)也。”〈陽貨11〉

經文에 나온, 의미상 연관된 두 單音節語를 語根으로 삼아 複合語로 만든 것도 있다.

## (5) 示，指→指示

◦ 知其說者之於天下也，其如云諸斯乎！指其掌。(체 제사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이것을 보는 것과 같다. 자기의 손바닥을 가리켰다.) 《集解》：“孔子謂或人言知筌禮之說者，於天下之事，如指示(以)掌中之物，言其易了(也).”〈八佾11〉

## 3. 同類反義型

‘同類反義型’은 동일한 聯合式 複合語 중에서 두 語根의 의미가 상반된 것으로 구성된 결합 형태를 말한다. 《論語集解》에서 이 유형의 複合語는 대부분 상반된 두 單音節語가 經文에 나온다. 품사와 구성 방식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명사+명사→명사

## (1) 文，質→文質

◦ 文猶質也，質猶文也。(문이 질과 같고, 질이 문과 같다.) 《集解》：“今使文質同者，何以別虎豹與犬羊邪(耶)?”〈顏淵8〉

## (2) 始，卒→終始

◦ 有始有卒者，其唯[惟]聖人乎!(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성인뿐일 것이다.) 《集解》：“終始如一，唯[惟]聖人耳(也).”〈子張12〉

## 3.2. 동사+동사→명사

## (1) 愛，惡→愛惡

◦ 愛之欲其生(也)，惡之欲其死(也).(그를 사랑할 때는 그가 살기를 바라고 그를 미워할 때는 그가 죽기를 바란다.) 《集解》：“愛惡當有常，一欲生之，一欲死之，是心惑也.”〈顏淵10〉

## (2) 好，惡→好惡



◦唯〔惟〕仁者能好人, 能惡人.(오직 인한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集解》: “唯〔惟〕仁者能審人(之)所好惡(也).” 〈里仁3〉

◦衆惡之, 必察焉; 衆好之, 必察焉.(모두가 그를 싫어한다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고,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면 역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集解》: “或衆阿黨比周, 或其人特立不群(羣), 故好惡不可不察也.” 〈衛靈公28〉

‘愛惡’와 ‘好惡’는 원래 동사이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되었다.

### 3.3. 동사+동사→동사

#### (1) 出→出入

◦誰能出不由戶(者)?(누가 출입하면서 문을 거치지 않겠는가?) 《集解》: “言人立身成功當由道, 譬猶(人)出入, 要當從戶(也).” 〈雍也17〉

## Ⅲ. 결론

《論語集解》에는 《論語》와 비교할 때, 새롭고 훨씬 다양하고 많은 複合語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論語》 經文의 單音節語가 확대되어 이루어진 것이 상당수 있다. 그 중에서 聯合式 複合語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것은 다른 문헌에서 나타난 정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聯合式이 고대에서 현재 까지 중국어에서 가장 발달한 조어 방식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聯合式 複合語는 同義互訓型·同類相關型·同類反義型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同義互訓型이 144개로 압도적인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同類相關型이 30개로 그 다음이고, 同類反義型은 5개로 가장 적다.

그리고 품사별로 보면, 동사 複合語가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형용사·명사·부사 순이다. 聯合式 複合語를 구성하는 두 語根의 품사는 서로 같으며, 일부는 詞類活用으로 인해 원래의 품사와는 다른 품사로 쓰였다. 또 일부의 복합어는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원 단음절어와 품사가 다르다.

《論語集解》 속의 複合語는 訓詁 및 文法上 다음의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 준다. 둘째, 문장 속에서 原 單音節語의 의미 및 詞性を 명확하게 해 준다. 셋째, 多義語인 原 單音節語의 의미를 확정해 준다.

《論語集解》속의 聯合式 複合語는 先秦兩漢시기의 조어법을 계승한 것으로서 현대 중국어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 【參考文獻】

- 徐德庵 〈從中古訓詁資料中反映出來的漢語早期構詞法—以《爾雅》·《方言》同郭注的對照爲例〉,《古代漢語論文集》,成都,巴蜀書社,1991.
- 徐朝華 〈從《爾雅·釋詁》看同義單音詞組成雙音詞的條件〉,《語言研究論叢》第3輯,天津,天津人民出版社,1987.
- 楊伯峻 〈反義復詞作單詞例證〉,《語言研究》1984年第1期,武昌,華中工學院出版社,1984.
- 楊伯峻 譯注 《論語譯注》,北京,中華書局,1992.
- 黎庶昌 輯 《覆正平本論語集解》(《古逸叢書》上),揚州,江蘇廣陵古籍刻印社,1990.
- 吳鴻遠 〈論同義複詞的類型及其作用〉,《語言文字學》1991年第7期,北京,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1991.
- 廖序東 〈金文中的同義並列複合詞〉,《中國語言學報》第4期,北京,商務印書館,1991.
- 劉國泰 〈古漢語聯合式雙音詞試析〉,《語言文字學》1985年第6期,北京,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1985.
- 劉寶楠 《論語正義》十三經清人注疏本,北京,中華書局,1992.
- 喻世長 〈《呂氏春秋》高誘注中所顯示的單素詞向多素詞演變的痕跡〉,《王力先生紀念論文集》,北京,商務印書館,1990.
- 喻遂生·郭力 〈《說文解字》的複音詞〉,《語言文字學》1987年第3期,北京,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1987.
- 劉永基 《中國語의 語彙構造 研究》,서울,成均館大學院博士學位論文,1992.
- 李炳官 《古代漢語의 複音節詞 研究—論語와 孟子를 中心으로》,서울,延世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1991.
- 李智澤 〈《孟子》與《孟子章句》複音詞構詞法比較〉,《中國語文》1988.5,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
- 李洪堯 〈淺析由《說文》中的互訓所形成的雙音詞〉,《漢字漢語學術研討會論文集》下冊,長春,吉林教育出版社,1991.
- 林萬菁 〈論同義同素異序雙音詞〉,《學術論文集刊》2集,新加坡,新加坡國立大學中文系,1987.
- 章炳麟 〈春秋左氏疑義答問〉,《章太炎全集》第6冊,上海,上海人民出版社,1986.
- 張世祿 〈同義爲訓與同義並行複合詞的產生〉,《張世祿語言學論文集》,上海,學林出版社,1984.
- 張雙棣 《呂氏春秋詞彙研究》,濟南,山東教育出版社,1989.
- 程湘清 〈《論衡》複音詞研究〉,《兩漢漢語研究》,濟南,山東教育出版社,1984.

- 程湘清〈對《世說新語》中聯合式複音詞的靜態描寫和動態分析〉，《王力先生紀念論文集》，北京，商務印書館，1990。
- 程湘清〈《世說新語》複音詞研究〉，《魏晉南北朝漢語研究》，濟南，山東教育出版社，1992。
- 程湘清〈變文複音詞研究〉，《隋唐五代漢語研究》，濟南，山東教育出版社，1992。
- 程湘清〈先秦雙音詞研究〉，《先秦漢語研究》，濟南，山東教育出版社，1992。
- 趙克勤《古代漢語詞彙學》，北京，商務印書館，1994。
- 陳丹紅〈試論《孟子》合成詞的構造及其類別〉，《語文論叢》第4輯，上海，上海教育出版社，1990。
- 祝敏徹〈從《史記》《漢書》《論衡》看漢代複音詞的構詞法〉，《語言學論叢》第8輯，北京，商務印書館，1981。
- 何晏等注：邢昺疏《論語注疏》十三經注疏本第8冊，臺北，藝文印書館，1985。
- 何毓玲〈《毛詩正義》訓詁語言中的雙音節〉，《漢字漢語學術研討會論文集》下冊，長春，吉林教育出版社，1991。
- 韓惠言〈《世說新語》複音詞構詞方式初探〉，《語言文字學》1990年第8期，北京，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1990。
- 向熹〈《詩經》裏的複音詞〉，《詞彙學論文彙編》，北京，商務印書館，1989。
- 許璧〈中國語の複音節詞研究〉《東方學志》第28輯 서울，延世大學校國學研究院，1981。
- 黃志強〈關於《左傳》複合詞的幾個問題〉，《研究生論文選集·語言文字分冊》，南京，江蘇古籍出版社，1985。

## 【中文提要】

從聯合式複合詞兩個詞素的意義關係看，主要有三種情況：第一，由兩個意義相同的詞素構成，叫做同義互訓型。第二，由兩個同類但不同義的詞素構成，叫做同類相關型。第三，由兩個意義相反的詞素構成，叫做同類反義型。《論語集解》中的複合詞以同義互訓型為最多。又從詞類來看，複合詞以動詞為最多，形容詞和名詞次之，副詞很少。有的複合詞和構成它們的單音詞詞性不同。聯合式複合詞由地位平等的兩個詞素構成，一些聯合式複合詞有詞類活用的現象。

《論語集解》中的複合詞在訓詁·文法上有些功用。第一，複合詞中的擴展成分有強調語意的作用。第二，《論語集解》複合詞中的擴展成分有助於明確原單音詞的意義·詞性。第三，原單音詞是個多義詞，《論語集解》增加一個同義成分，構成複合詞，使詞義確定。

《論語集解》中的聯合式複合詞繼承了先秦兩漢時代的構詞法，在基本上和現代漢

語一樣.

**【主題語】**

論語集解, 聯合式複合語, 同義互訓型, 同類相關型, 同類反義型